

「有孔廣口小壺」考

李 殷 昌

(편집자註)

本稿는 元來 一、序言。二、韓國의 有孔廣口小壺、三、日本의 壺。四、有孔廣口小壺가 지니고 있는 諸問題。一、起源과 分布。二、用途와 性格。五、結論으로 構成된 것이나 이번 號의 制限된 紙面關係로 日本에 關한 部分은 모두 割愛하기로 한 것이다。

一、序 言

「有孔廣口小壺」가 韓國과 日本에 分布되고 있어 오랫동안 注目되어 왔었다. 「有孔廣口小壺」는 그 壺身이 大體로 球形으로 되어있고 그 壺身 위에 強한 外反을 하며 V字形으로 된 頸部와 口緣部가 달려 이른바 廣口를 이룬 文字 그대로의 「廣口小壺」를 形成하였다. 이러한 器形으로 보아서는 軟質系의 赤色土器와 硬質系의 陶質土器의 古式土器에서 볼 수 있는 廣口壺의 系譜라 하겠다. 그런데 特히 注視되어 온 것은 廣口小壺의 壺身 中腹部에 한개의 圓形小孔을 뚫어서 一種의 異形土器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有孔廣口小壺」에 대하여는 그동안 區區한 學說이 분분하고 아직도 그 定說이 없다. 그런데 最近에 와서 韓國南部地方에서 그 出土例가 激增되고 그 分布樣相이 具體적으로 들어났다. 그리고 日本各地에서도 이미 많은 出土例가 있고 그 分布地域과 그 發展樣相이 밝혀지고 나가서는 韓日間의 交流史의 一面에도 漸次 理解되어가고 있는 形便이다.筆者 또한 平素에 土器研究를 하는 中에 有孔廣口小壺에 대한 關心이 깊어가고 이들 資料를 모으며 그 學問的인 考察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그

리하여 이에 韓國과 日本에서 盛行하고 있는 이 有孔廣口小壺의 國內出土例와 分布狀, 그리고 그 起源에 關한 試論을 펴보려고 한다.

二、有孔廣口小壺의 分布

韓國에 있어서의 有孔廣口小壺는 現在 調査된 資料를 通하여 볼때 高句麗類例는 볼 수 없고 百濟、伽耶、古新羅의 地域이던 韓國의 南部地方에 生産되었고 그 發達 모습이 多樣하였다. 그러나 正規 學術調査를 거쳐 發見된 資料가 적고 그 大部分이 盜掘 또는 非學術的인 經路로 蒐集된 資料이기 때문에 보다 明確한 事實을 밝혀내기란 곤란한 일이지만 現在 알려진 資料가 相當數에 達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一) 重要遺品

一、百濟地域 出土 有孔廣口小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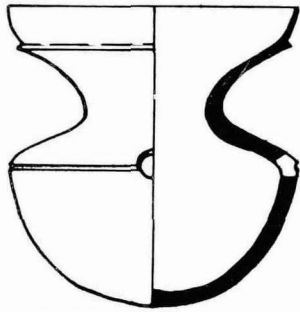
全羅南道 鎭海 湖南地方에서 最近에 有孔廣口小壺가 出土되었다. 慶熙大學校에서 發掘調査된 靈岩 內洞里甕棺墓에서 出土된 一例와 高敞新月里甕棺墓에서 出土된 一例와 또 金山寺附近 出土로 傳하는 一例와 金堤地方 出土品 一例가 蒐集되었다.

(一) 內洞里五號甕棺墓 出土 有孔廣口小壺(1)(挿圖 1)……胎土가 精密하고 高火度의 燒成으로 硬質系의 灰青色陶質土器이다 壺身은 大形壺의 形態와 같고 頸部는 壺身 위에서 強한 外反을 하면서 올라갔다. 口緣部는 典型的인 盤口狀을 이루었다. 그리고 壺身 中間位 위쪽에 突帶文을 돌리고 그 突帶文에 걸쳐 圓形小孔을 뚫었다(實測值 全高九, 七cm 壺身徑九, 七cm 口徑九, 二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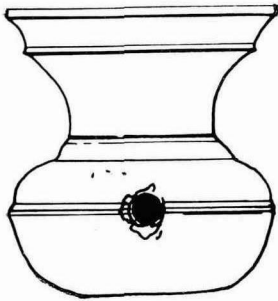
(二) 金堤地方 出土 有孔廣口小壺(2)(挿圖 1)……全羅北道 鎭海地方의 出土品이다. 胎土는 砂粒이 混入된 粗質로 그 燒成度는 低火度의 素燒이며 褐色 軟質土器이다. 壺身部는 扁平한 橢圓球形으로 丸底이나 좀 扁平하여 安定座를 取하였다. 이 壺身部 위에 頸部가 달려 있는데

接部に層節을 이루고 曲線을 지우며 올라갔다. 口緣은 廣口로 盤口狀을 形成 하였다. 그리고 壺身部의 中腹에 突帶文을 돌리고 이 突帶文에 거쳐 圓形小孔을 뚫었다(實測值 全高一·一 cm 壺身徑一〇、三 cm 口徑一〇、八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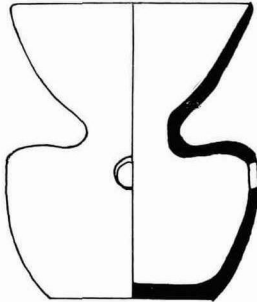
(三) 內洞里二號甕棺墓 出土 有孔廣口小壺(3)(插圖1——③)……胎土가 精密한 便이나 精質傾向이며 燒成度는 低火度로서 軟質土器이다 器形은 若干 扁平한 球形壺身部 위에 V字形으로 外反한 頸部가 나팔狀을 이루며 그대로 瓣어 廣口狀을 形成하였다. 그리고 壺身部에 圓形小孔을 뚫었다. 손으로 빚어 만든 것으로 粗雜한 手法이며 아무런 文樣도 없는 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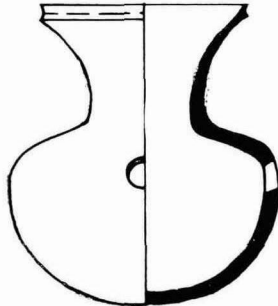
① 內洞里 五號甕棺墓 出土
〈慶熙大學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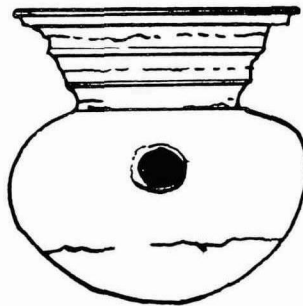
② 金堤地方 出土
〈全州市立博物館 所藏〉



③ 內洞里 2號甕棺墓 出土
〈慶熙大學博物館 所藏〉



④ 新月里 甕棺墓 出土
〈全州市立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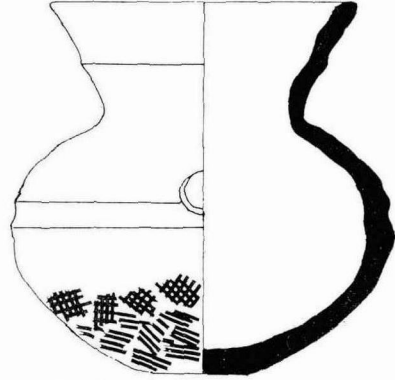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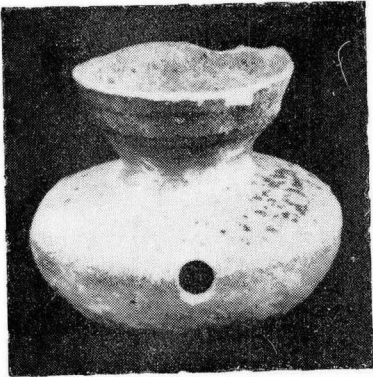
⑤ 金山寺 附近 出土
〈全榮來氏 所藏〉

插圖1. 百濟地域出土有孔廣口小壺
(金元龍論攷·全榮來論攷에 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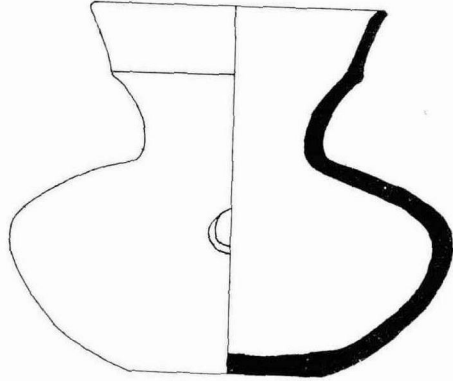
文으로 素朴한 遺品이라 하겠다(實測值 全高一〇、三 cm 口徑一〇、二 cm)
(四) 高敞邑新月里甕棺墓 出土 有孔廣口小壺(4)(插圖1——④)……胎土가 精緻하고 灰色硬質陶이다. 丸底壺身은 大體로 球形을 이루고 그 위에 頸部가 달렸다. 頸部는 曲線을 지우며 外反하고 올라 갔는데 口緣은 急激한 反轉을 이루고 附加式으로 形成되었다. 역시 素文이며 壺身部 中間位보다 위에 小孔을 뚫었다(實測值 全高一〇、五 cm 壺身徑九、四 cm 口徑七、三 cm)
(五) 金山寺附近 出土 有孔廣口小壺(5)(插圖1——⑤)……全榮來氏의 所藏品으로 全羅北道 金山寺附近에서 出土된 것이다. 全榮來氏의 報告 圖面에 依하면 丸底壺身部가 大體로 球形을 이루고 그 위에 頸部가 V字形으로 斜出하며 올라 갔는데 그 頸部에 二個의 突帶文을 돌려 層節을 보이고 끝에 이르러 強한 反轉을 하며 一種의 附加式樣相의 口緣部를 形成하였다. 그리고 壺身部 中間位보다 위쪽에 圓形小孔을 뚫었다(實測值……未詳)

이밖에 扶餘博物館에서 典型的인「有孔廣口小壺」一個(出土地 未詳)를 調査할 수 있었다. 硬質陶의 典型的인 器形을 하고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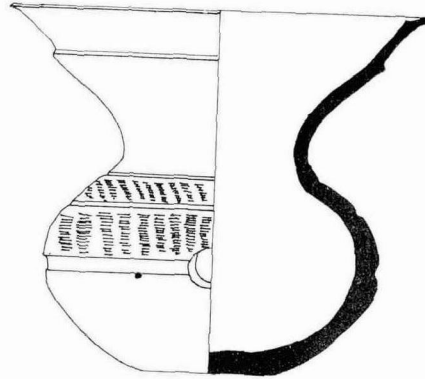
以上 記述한 遺品(7)들은 그 發展的 形態順으로 列擧하였다 勿論 그 年代的 隔差가 큰 것은 아니고 모두 高古한 것으로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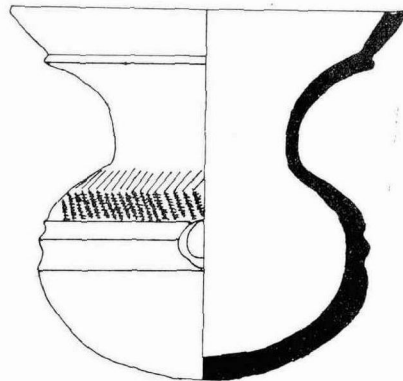
① 第1型



② 第2型



③ 第3型



④ 第4型

挿圖 2. 伽耶地域 出土 有孔廣口小壺
(嶺南大學校博物館 所藏) <左……사진 右……實測圖>

洞里二號甕棺墓出土品은 軟質系이고 金堤地方出土品은 粗質系이며 그리고 新月里甕棺墓出土品과 內洞里五號甕棺墓出土品도 硬質陶이기는 하지만 그 器形 또는 燒成度가 粗雜하여 前記有孔廣口小壺들과 같이 高古한 性質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內洞里出土品 二個와 新月里出土品은 모두 百濟甕棺墓에서出土된 遺品으로서 같이 伴出된 軟質系의 赤色土器 또는 硬質系의 陶質土器와 더불어 百濟古墳初期에 該當하며 모두 百濟地域 南部地方에 分布되고 있다.

二、伽耶地域 出土 有孔廣口小壺

洛東江流域과 南海岸地帶인 伽耶地域에서도 많은 「有孔廣口小壺」가出土되었다. 學術的인 正式發掘調査를 거쳐出土된 것은 釜山 東萊 福泉洞第一號古墳에서出土된 것 一例에 不過하지만 이밖에多數의 「有孔廣口小壺」가出土되었다. 이들은 正確한 出土地點을 모르고 있는 것이나 모두 伽耶地域에서出土된 것으로 筆者가 蒐集하여 嶺南大學校博物館에 所藏된 것 만도 十餘點이 되고 國內各博物館에 所藏된 것이 相當數에 達한다.

(一) 有孔廣口小壺 伽耶第一型(插圖 2) ① 插圖 4——伽耶(1)……
伽耶第一型에 該當되는 嶺南大學校博物館 所藏品 二個가 있다.

「其一」(插圖 2) ①은 胎土가 精密하고 高火度 燒成으로 灰青色의 硬陶이다. 丸底球形壺身 위에 外反하며 V字形으로 斜出한 頸部가 달리고 口緣은 銳利하게 切斷한 處理로 하였다. 壺身 中間位에 突帶文을 돌리고 이 突帶文에 걸쳐 圓形小孔을 뚫고 壺身 下半部에는 大形壺에서 볼 수 있는 格子文式的 打捺文이 施文되어 注目된다(實測值 全高一、二cm 壺身高 八cm 壺身徑 二、八cm 頸部高三、二cm 口徑九、七cm)

「其二」(插圖 4)——伽耶(1)는 前者와 同一한 樣式系列이나 特히 이 遺品은 壺身 中間位에 突帶文과 波狀文을 걸쳐 돌리고 그 下半部에 集短線文을 打捺施文하였다. 그리고 若干열로 퍼진 壺身과 外反이 강한 頸部가 서로 어울리는 품이 마치 大形短頸壺의 縮小版이라 하겠다(實測值

全高九、六cm 壺身高六、〇cm 壺身徑一〇、八cm 頸部高三、六cm 口徑一〇cm)

(二) 有孔廣口小壺 伽耶第二型(插圖 2) ② 插圖 4——伽耶(2)……
伽耶第二型에 該當되는 嶺南大學校博物館 所藏 有孔廣口小壺와 東萊 福泉洞 第一號古墳 出土 有孔廣口小壺가 있다.

嶺南大學校博物館 所藏品(插圖 2) ②은 高火度の 燒成으로 平坦하게 自然釉가 보이는 黝黑色의 硬陶이다. 壺身部는 球形이나 扁平하여 옆으로 퍼지고 그 中腹部에 小孔이 뚫려 있다. 頸部는 外反하면서 斜出하였는데 中間에 한줄기의 突帶를 돌려서 口緣部는 盤口狀에 가까운 手法를 취하였다(實測值 全高一〇、一cm 壺身高六cm 壺身徑一二cm 頸部高四、一cm 口徑八、三cm)

釜山 東萊 福泉洞 第一號古墳 出土 有孔廣口小壺(插圖 4)——伽耶(2)도 前者와 같이 高火度の 燒成으로 硬質陶이다. 壺身部는 大體로 丸底球形으로 壺身 中腹部 보다 若干 위쪽으로 突帶文으로 돌리고 이에 걸쳐 小孔이 뚫렸으며 壺肩部에도 突帶文을 돌렸다. 頸部는 曲線으로 外反하다가 突帶文을 돌리고 다시 盤口狀의 口緣으로 變轉하였다(8)(實測值 全高一〇cm 壺身徑 一〇、四cm 口徑 七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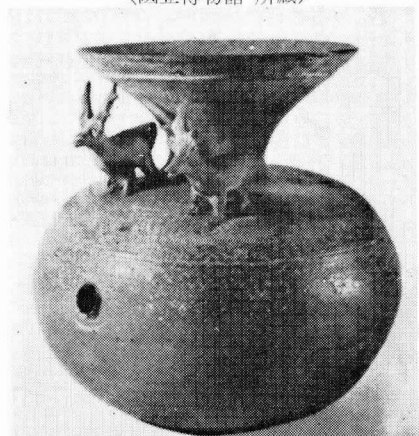
(三) 有孔廣口小壺 伽耶第三型(插圖 2) ③ 插圖 4——伽耶(3)……
伽耶第三型에 該當하는 嶺南大學校博物館 所藏 有孔廣口小壺 二個가 있다.

「其一」(插圖 2) ③은 胎土가 精緻하고 高火度 燒成의 硬質陶이다. 球形壺身の 中間位에 突帶를 돌리고 이 突帶에 걸쳐 圓形小孔을 뚫었다. 頸部는 강한 外反을하면서 曲線으로 斜出하고 口緣部는 典型的인 盤口狀을 하였으며 壺身보다 훨씬 큰 廣口形을 이루었다. 特히 壺肩部에 斜線을 相對시키어 V字形의 連續文帶를 돌린 것이 特色이다(實測值 全高一〇、五cm 壺身高六、二cm 壺身徑九、八cm 頸部高四、三cm 口徑一一、四cm)

「其二」(插圖 4)——伽耶(3)는 그 胎土·燒成度·質成·器形 等 모두 前者와 같다. 器表面은 轆轤에 걸쳐 整形되었는데 素文이며 頸部에 突



① 有孔廣口小壺(伽耶)
〈國立博物館 所藏〉



② 鹿形土偶裝飾有孔廣口小壺(古新羅)
〈國立博物館 所藏〉〈慶州附近 出土〉



③ 有孔瓢形土器(伽耶)
〈嶺南博物館 所藏〉〈洛東江流域 出土〉

插圖 3. 有孔廣口小壺의 三例

帶文을 二重으로 돌려 盤口狀 口緣部를 形成하였다(實測 全高九、三 cm 壺身高五、六 cm 壺身徑一、二 cm 頸部高三、七 cm 口徑八、五 cm) 이와 같은 伽耶第三型에 속하는 有孔廣口小壺의 類似品이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에도 所藏되어 있다(9).

(四) 有孔廣口小壺 伽耶第四型(插圖 2) ④ 插圖 4 伽耶(4) : 伽耶第四型에 該當하는 嶺南大學校博物館 所藏 有孔廣口小壺 二個가 있다 「其一」(插圖 2) ④는 前者들과 같이 高火度の 燒成으로서 灰褐色 硬質陶이다. 球形壺身을 이루고 丸底이나 底面을 若干 平平하게 하여 安定座를 取하고 그 中腹部에 例의 圓形小孔을 뚫었다. 壺身部의 下半身은 素文이고 上半身은 陰刻線文帶를 三個所에 돌려 第一區間과 第二區間에 刻點文을 施文하였다. 頸部는 강한 外反을 하며 올라가다가 突帶文을 돌리고 이로 부터 盤口狀의 口緣部로 急變하였다(實測值 全高一、二 cm 壺身高六 cm 壺身徑一〇、四 cm 頸部高五、二 cm 口徑二、六 cm)

「其二」(插圖 4) 伽耶(4)는 胎土·燒成·質感·器形 등이 모두 前者들과 같다. 大體로 扁平한 球形으로 된 壺身部를 이루었다. 이 壺身部 中腹部線의 아래쪽 下半部에 小孔을 내려 뚫었다. 頸部는 강한 外反을 하며 曲線으로 비껴 뻗었는데 頸部에서 口緣部로 急變轉하여 두드러진

盤口狀을 한 口緣을 形成하였다. 은뎀을 轉輻로 整形하였는데 素文이다 (實測值 全高九、二 cm 壺身徑一〇、三 cm 口徑一〇、五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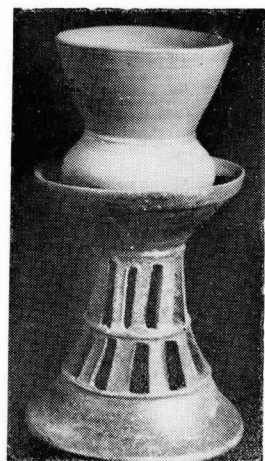
(五) 有孔廣口小壺 伽耶第五型(插圖 3) ① :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品으로 灰色 硬質陶이다. 器形은 丸底球形壺身을 이루었는데 壺身 中腹에 圓形小孔을 뚫고 이 小孔位置를 基準으로 해서 下半部는 素文이고 上半部는 轉輻를 廻轉하여 突帶文을 四重으로 돌려 頸部는 細長한 모음을 하고 外反하며 V字形으로 올라갔는데 역시 轉輻를 廻轉하여 突帶文을 두군데에 돌려 三段層節을 이루었다. 그리고 口緣部에 이르러서 는 강한 反轉을 보이며 盤口狀을 形成하고 口徑이 특히 넓다. 높이가 一三、五 cm에 口徑이 一三 cm이며 壺身徑과 口徑의 比는 約 一對一로서 이 遺品은 그 키가 후리후리하게 높고 口徑이 넓은 것이 特色이다(10).

(六) 有孔瓢形土器 伽耶特殊型(插圖 3) ③ : 洛東江流域에서 出土된 有孔瓢形土器 一個가 嶺南大學校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그 燒成度는 灰褐色의 硬質陶로 器形은 平底에 瓢形器體이며 口緣部는 轉輻에 결어 整形하고 腹部에 圓形小孔을 뚫었다. 이 土器는 年代가 내려오는 것이나 이는 特殊形有孔土器의 意匠임에는 틀림 없다(實測值 全高一、六 cm 器身徑一〇、八 cm 口徑四、五 cm)

有臺廣口小壺
(伽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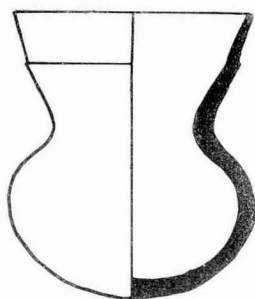


洛東江流域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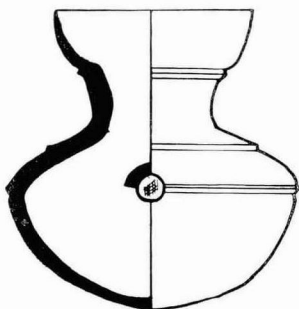


洛東江流域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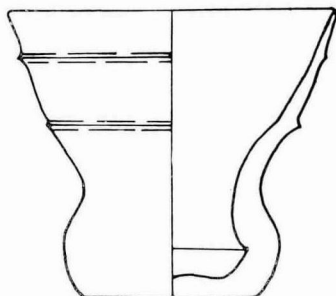
丸底廣口小壺



熊川具塚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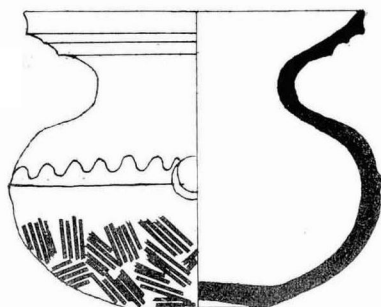


洛東江流域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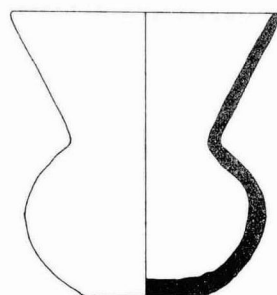


對馬島擊比須山五號石棺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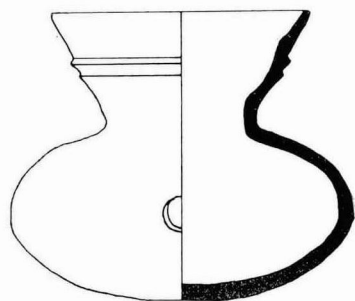
有孔廣口小壺
(伽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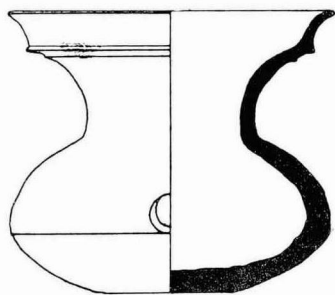
① 洛東江流域 出土



② 福泉洞1號墳 出土



③ 洛東江流域 出土



④ 洛東江流域 出土

插圖 4. 丸底廣口小壺의 發達系譜
(韓日關係資料에 依社表)

以上記述한 바로 伽耶地域인 洛東江流域과 西海岸地帶에서 많은 有孔 廣口小壺의 遺品이 出土되고 이것으로 多量 分布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發達모습은 大體로 五階段形式으로 發達過程을 밝은 것으로 생각된다. 第一型은 壺身下半部에 集短線의 打捺文을 施文하고 頸部가 짧고 口徑이 壺身徑보다 작은 形態로 口緣部는 銳利하게 切斷하고 盤口狀이 가법게 表示된 古式型 樣式을 볼 수 있다. 第二型에 이르러서는 壺身部가若干 扁平한 모습을 보이고 頸部가 外反하면서 길고 높아지는 등 有孔廣口小壺의 典型的인 樣式을 具備하기 시작한다. 第三型은 前者들과는 正反對로 壺身이 작아지고 頸部와 口緣部가 더욱 크고 넓어지며 그리고 盤口形의 口緣으로 統一되고 壺身に 鑿은 小孔이 壺身下半部로 내려가는 例가 많다. 第四型은 前者 第三型의 樣式傾向이 더욱 顯著해서 頸部가 높아지고 口緣部가 크고 넓어지며 特別히 壺身과 頸部에 華麗한 文樣이 施文되는 例가 많다. 第五型은 壺身이 아주 작아져서 形式的으로 變化하고 頸部가 特別히 높아지며 口徑이 더욱더 넓어져서 一種의 奇形化한 一般的인 容器와는 相距가 있는 性格을 갖추는 傾向이다.

有孔廣口小壺의 發達過程을 위와 같이 五階段으로 細分하였는데 이들 五階段이 年代差가 嚴格하고 큰 것은 아니다. 大體로 伽耶地域에서 出土된 有孔廣口小壺는 上述한 바와 같이 五階段의 類型으로 形態的 變遷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實用的인 容器 形態에서 非實用的인 假器樣相으로 轉換하여가는 것은 祭祀의 儀典土器로서의 目的이 露骨化한 것이다.

三、古新羅地域 出土 有孔廣口小壺

新羅의 古都인 慶州와 그 附近에서도 有孔廣口小壺가 出土될 可能性이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正規 學術的인 調査를 거쳐 出土된 事實은 없고 다만 鹿形土偶裝飾有孔廣口小壺 一個가 出土되어 그 遺品이 傳해 올 뿐이다.

(一) 鹿形土偶裝飾有孔廣口小壺(插圖 3—②)……鹿形土偶裝飾有孔

廣口小壺는 國立中央博物館 所藏品(元 德壽宮美術館 所藏)이다. 胎土가 精密하고 高火度の 燒成으로 灰色硬質陶이며 器表面에 自然釉가 보인다. 器形은 大體로 楕圓球形의 壺身이고 그 中腹部에 圓形小孔이 뚫여 있다. 頸部는 曲線을 지으며 外反하였고 口緣部에 이르러 더욱 強하게 外反하였다. 器表面은 一切 軋轆로 整形하였는데 素文이다. 特別히 注目되는 것은 壺肩部에 두마리의 鹿形土偶를 裝飾하였음에 注目된다(實測值 全高 一六cm)(II)

四、有孔廣口小壺가 지니고 있는 諸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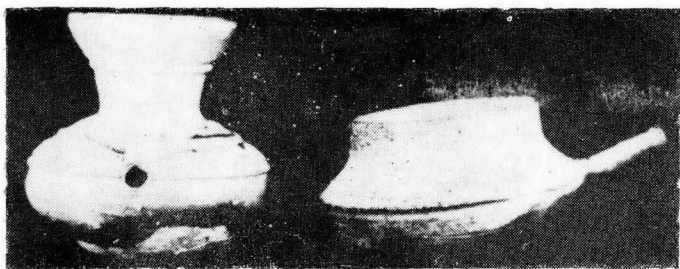
(一) 有孔廣口小壺의 起源과 分布

「有孔廣口小壺」라는 特異한 土器가 韓國南部地方과 日本各地에서 그 遺品이 出土되고 있어서 그 起源에 대하여 區區한 說이 있다. 韓國起源說 또는 日本起源說 등으로 엮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近來에 와서는 有孔廣口小壺가 出土된 遺跡樣相과 器形의 發達狀態와 分布와 編年上의 問題로 推定되는 바는 韓國起源說이 確實視되고 있다. 그러나 이 有孔廣口小壺가 韓國에서 起源하였겠느냐 하는 問題에 이르러서는 또 百濟起源說과 伽耶起源說이 兩立되어 있어 그 確定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筆者는 이 有孔廣口小壺에 關心을 가지고 그 資料를 모으며 有孔廣口小壺의 起源과 分布에 대하여 平素에 생각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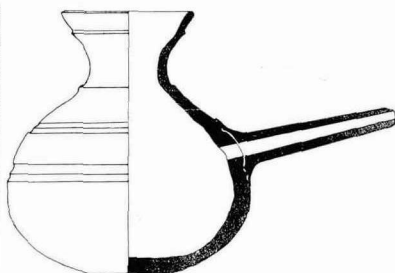
起源……百濟地域인 全羅南北道地方에서 最近에 有孔廣口小壺가 調査되었다. 이미 前記 二項에 紹介한 바와 같이 靈岩 內洞里五號甕棺墓·內洞里二號甕棺墓·金堤地方·高敞 新月里甕棺墓·全山寺附近·等에서 有孔廣口小壺가 出土되었다. 이들 有孔廣口小壺는 高古한 樣式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遺品이 古式甕棺墓에서 出土된 例가 많고 또 같이 伴出된 土器類가 古式에 속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現在로서는 有孔廣口小壺의 起源과 그 年代는 百濟南部地域에서부터라고 하고 百濟古墳初期로 推定하는 傾向이다. 그리하여 有孔廣口小壺의 百濟起源說이

強調되고 있다(12).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다음과 같은 解釋을 하고 있어 百濟起源說이 絶對的인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有孔廣口小壺의 基本形態가 廣口小壺이고 이 有孔廣口小壺가 古式廣口小壺에서 發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廣口小壺의 高古한 始源型은 南海岸貝塚에서 부터 始初하고 있어 그 典型的인 것이 熊川貝塚과 禮安里古式 土擴墳에서 出土된 軟質系의 赤色土器인 丸底廣口小壺와 硬質系의 陶質土器인 丸底廣口小壺들이다(13). 이와 같은 始源型的인 丸底廣口小壺에서 插圖 4와 같이 體系的인 發展을 한 것을 新羅地域과 伽耶地域에서 出土되는 土器에서 找



① 有孔廣口小壺와 注口小壺(伽耶)
〈釜山 東萊 福泉洞古墳 出土〉



② 注口小壺(伽耶)〈昌寧 桂南里 1號古墳 出土〉
插圖 5. 各種 注口土器의 類例

아 볼 수 있다. 또 有孔廣口小壺의 出土例도 百濟의 中心地域이던 漢江

流域이나 錦江流域에서는 없고 百濟의 南部地域에 若干 있을 뿐이며 伽耶의 中心地域이던 洛東江流域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 반드시 有孔廣口小壺가 百濟地域에서 起源하였다고 斷言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伽耶地域에서 起源하고 이곳에서 體系的인 發展을 하였으며 또 盛行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可能性도 充分히 있다. 그리고 보면 有孔廣口小壺의 起源은 百濟와 伽耶를 두고 그 어디라고 速斷할 수 없다.

앞으로 이 有孔廣口小壺의 資料가 더욱 많이 나와 學術的인 調査와 研究를 거쳐야 確定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平素에 생각하여 온 바는 有孔廣口小壺의 文化圈은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榮山江流域·洛東江流域·南海岸地帶에 걸쳐 있는 百濟·伽耶·新羅의 古墳文化로서 形成되었다. 그리하여 有孔廣口小壺의 起源은 그 文化圈인 韓國南部地方에서 古墳文化와 더불어 發生하고 發達하였다고 하겠다.

(二) 「有孔廣口小壺」의 用途와 性格

「有孔廣口小壺」는 壺身에 圓形小孔이 뚫여 있어 그 形態에서 오는 그 用途와 性格에 對하여 오랫동안 區區한 學說이 있어 아직도 定說이 없다.

日本の 有孔廣口小壺은 하소오(はそう(甕))는 그 舊稱 「ハサフ」에 서 變換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延喜式에서는 竹管을 添加한다 하여 그 壺身 中腹部에 圓形小孔을 뚫고 그 구멍에 竹管을 박아 注口小壺로 變形하여 술(酒)을 따는 器具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後世의 注口의 源流라고 하였다(14). 그리고 한편 高坏 등과 같이 祭祀用으로 쓰이었다고 하였다(15) 이에 따라 韓國에서 出土되는 有孔廣口小壺도 이 兩說을 適用시키어 各各 두가지 意見으로 對立하여 왔다. 筆者는 後者が 妥當한 解釋으로 생각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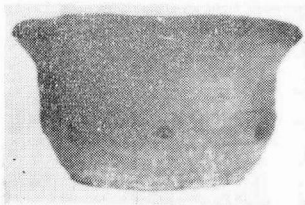
有孔廣口小壺에 竹管을 끼워 注口器로 使用하였다는 것은 옳은 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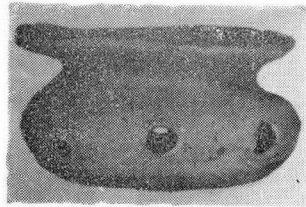
① 有臺長頸壺<20號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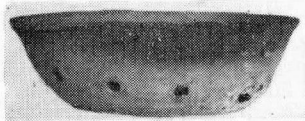
② 壺形土器<1號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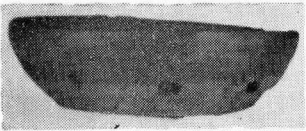
③ 壺形土器<1號遺跡>



④ 壺形土器<1號遺跡>



⑤ 环形土器<1號遺跡>



⑥ 环形土器<1號遺跡>

插圖 6. 沖の島 出土 有孔土器

이라고 볼 수 없다. 이 有孔廣口小壺가 盛行하던 時期에 新羅와 伽耶에 是 陶製 注口管을 만들어 붙인 注口壺가 許多하였다. 곧 昌寧 桂南里第一號古墳에서 出土된 注口小壺(16)는 앞에 記述한 有孔廣口小壺와 같은 크기 같은 器形의 小壺인데 이 遺品에는 기다란 陶製 注口管이 有孔廣口小壺의 小孔位置와 똑같이 달려 典型的인 注口小壺를 形成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慶州 金鈴塚를 비롯하여 新羅와 伽耶에서는 有臺注口壺의 出土例가 많다. 그리고 皇甫洞 味鄒王陵地區 古墳에서 出土된 神龜形土器 金鈴塚에서 出土된 騎馬人物像土器 二個 等은 神通한 高度의 技術을 자랑하는 注口容器를 製作한 事實로 보아(17) 有孔廣口小壺에 竹管을 끼워 注口壺로 利用할 何等의 理由가 없다. 더구나 東萊 福泉洞第一號古

墳에서 有孔廣口小壺와 그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注口管이 달린 注口小壺가 出土되었음(18) 해서 여기 有孔廣口小壺는 竹管을 구멍에 끼워 使用한 것이 아니라 有孔土器로서의 使用目的의 下에 만들어진 特殊한 異形土器로서의 祭祀用 土器로 보아야 妥當할 것이다.

有孔廣口小壺가 盛行하던 當時 新羅와 伽耶의 土器에는 이에 준하는 祭祀用土器가 많이 있다. ① 高环形의 坏器內 한가운데에 圓筒孔을 뚫은 有孔高坏(嶺大博物館 所藏), ② 壺身部에 三段構造로 長方形透窓을 交互 透彫한 透彫壺(籠形壺)(國立博物館 所藏), ③ 또 高环形의 坏器身部에 二段構造의 透窓을 交互로 透彫한 透彫高坏(籠形高坏)(金鈴塚·皇甫洞 古墳 出土品)等도 異形土器로서 有孔廣口小壺와 같이 日常生活用 土器라

기 보다는 當時 社會의 信仰 乃至는 呪術에 關係되는 儀典用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日本「沖の島」의 祭祀遺跡에서 出土된 有孔土器가 있다. 이들 有孔土器는 坏形土器、壺形土器 그리고 有臺長頸壺等인데 모두 土器 胴體 둘레에 六個乃至八個의 圓形 小孔을 뚫었다. 이 有孔土器는 七世紀 中半頃の 祭祀用 土器인데 이는 有孔廣口小壺의 系列로 古代로 부터 後代에 이르도록 繼續되는 祭祀用 有孔土器이나 아닐가 한다(19).

有孔廣口小壺의 系列로 特殊形態를 갖춘 有孔土器에 이르러서는 더욱 祭祀用土器의 色彩가 濃厚하다. 이미 上述한 韓國側의 有孔 瓢形土器·鹿形土偶裝飾有孔廣口小壺等을 비롯하여 日本側의 有孔 孔臺付長頸壺·有孔橫岳土器·有孔母子廣口壺及土偶裝飾器臺·有孔家形土器 等은 그 器形에 있어서는 各各 特色이 있어 서로 다르지만 그 用途와 性格에 있어서는 有孔廣口小壺와 같고 그 系列에 속하는 것이며 모두 信仰上의 祭祀用 土器일 것이다. 특히 韓國의 鹿形土偶裝飾有孔廣口小壺와 日本의 有孔母子廣口小壺及土偶裝飾器臺·有孔家形土器는 當時 社會의 信仰思想과 呪術的인 行事에 利用되는 祭祀用 土器의 모습을 具體的으로 엿보이고 있다. 「鹿形土偶裝飾有孔廣口小壺」의 鹿形土偶를 裝飾하는 것과 같은

意匠은 우리나라 先史時代부터 있었다. 곧 永川 漁隱洞에서出土된 靑銅製鹿頭·慶州附近出土(小倉氏所藏)靑銅製肩甲의 사슴文樣(鹿形文)蔚州川前里 岩刻畫의 사슴(鹿) 등이 있고 古墳時代에 들어와서는 高句麗의 舞踊塚에 보이는 狩獵圖에 騎馬射鹿圖가 있다. 그리고 日本側에는 彌生式時代의 袈裟禪文銅鐸에 나타난 狩獵人物文이 있다. 이와 같은 類例는 鹿形土偶裝飾有孔廣口小壺와 더불어 先史時代부터 古墳時代에 이르는 狩獵人의 崇鹿思想에서 온 表現으로서 또는 狩獵圖 등을 通하여 볼 때 古代人들의 生産的인 祭祀行事와 關聯되는 狩獵의 豐饒를 祈願하는 信仰의 人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20). 그리고 이 鹿神信仰의 源流는 西伯利亞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오보체르카스크의 金製冠의 鹿形裝飾이나(21) 또 에니세이 出土의 Shaman冠은 鹿角裝飾冠(22) 등과 連結되는 것으로 北方系文化로서 Shamanism의 面에서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日本의 「有孔母子廣口壺及土偶裝飾器臺」는 韓國의 硬質系의 陶質土器와 日本의 須惠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母子土器와 土偶裝飾土器가 綜合된 意匠을 지닌 異形土器라고 하겠다. 元來 이들 母子土器나 土偶裝飾土器는 當時 社會의 祭祀用 土器로 利用되었다는 것이다. 特別히 土偶裝飾器臺에는 거북(龜)土偶가 裝飾되었다. 이와 같은 韓國의 類例로 高坏蓋·長頸壺 등에 거북(龜)土偶가 裝飾되는 例가 許多하고 또 皇南洞 味鄒王陵 地區古墳에서出土된 神龜形土器와 大邱 達城에서出土된 龜形土器도 있다. 또 日本의 類例로는 上述한 袈裟禪文銅鐸(23)의 龜形文과 이에 問題가 되고 있는 거북土偶裝飾器臺가 있다. 이들 資料는 龜神信仰의 經典이며 龜形土偶裝飾土器와 龜形土器는 動物崇拜 곧 Totemism의 依한 土俗信仰으로서 곧 豐饒를 미는 生産信仰의 祭祀用 土器라고 생각 된다.

五、結論

韓國과 日本에 分布되고 있는 有孔廣口小壺는 上述한 바로 그 遺品の

모습과 起源 分布의 樣相과 用途와 性格을 잘 알 수 있겠다. 이를 要約하여 編年을 알아 보고 이 有孔廣口小壺의 文化圈의 特色을 通하여 結論을 내려 보기로 한다.

有孔廣口小壺는 百濟·新羅·伽耶等 韓國南部地方에서 三世紀頃부터 四世紀頃에 起源하고 이 地域에 널리 分布되고 있어 四世紀·五世紀頃에 盛行하고 六世紀頃에 이르러 衰退하여 갔다. 典型的인 樣式은 갖춘 有孔廣口小壺는 南海岸地帶와 洛東江流域의 伽耶에 發達하고 이 地域으로부터 四世紀頃에 一次的으로 對馬島에 波及되고 뒤이어서 四世紀後半부터 五世紀頃에 中部日本에 傳授되었다. 이것이 刺戟이 되어 五世紀頃에 大阪府堺市の 陶邑에서 須惠器를 生産하면서 부터 이들 有孔廣口小壺를 製作生産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伽耶地域의 有孔廣口小壺의 樣式으로 하고 있었으나 漸次 日本의 特色이 있는 有孔廣口小壺를 生産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韓國의 南部地方과 日本을 包含한 有孔廣口小壺 分布地域을 形成하고 그 文化圈을 이루었다.

韓國南部地方과 日本을 包含한 有孔廣口小壺의 文化圈을 形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當時 土器文化는 韓日間에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다. 日本의 土師器와 須惠器의 源流는 역시 韓國南部地方인 百濟·新羅·伽耶等 各地域土器에서 찾아야 하겠고 특히 日本의 須惠器는 硬質系의 陶質土器系列로 洛東江流域과 南海岸地帶의 土器樣式을 하고 있다. 곧 ① 坏·高坏·短頸壺·長頸壺·有臺長頸壺를 基本形態로 한 土器形態를 하고 ② 土器의 臺脚部에 透窓을 配列하며 ③ 母子土器와 土偶裝飾土器로 된 異形土器를 生産하는 등은 韓日間에 共通의 樣式으로 東部亞細亞의 土器文化의 特色인가 한다. 뿐만 아니라 多紐細文鏡·細形銅劍 등을 비롯하여 曲玉·母子曲玉·出子形立華飾金冠 등은 모두 非中國系의 文化로서 그 源流를 韓國에 둔 역시 앞에 記述한 土器文化와 더불어 韓日間에 共通的인 樣式을 갖춘 東部亞細亞文化圈의 樣相인가 한다. 이들은 北方系의 草原騎馬生活에 適合한 窄袖肢體形의 褙袴制服飾을 한 사람들과 이 우리나라와 日本에 걸쳐 살며 이룩한 文化樣式인가 하며 本稿에 論

述한 「有孔廣口小壺」도 이들 文化樣式에 該當하는 것의 하나임을 添言하는 바이다.

(註)

- (1) 黃龍潭 靈岩內洞甕棺墓調查報告「五號墳——有孔小壺——」p. 二五 서울 慶熙大學校博物館(一九七四)
- (2) 全榮來 全北遺蹟調查報告 第二輯「資料一 驪에 관한 補遺」(有光教一氏와의 交信) p. 四〇全州 全羅北道博物館(一九七三)
- (3) 黃龍潭 前掲書「二號墳——有孔小壺——」p. 一八
- (4) 全榮來 全北遺蹟調查報告 第一輯「全北地方 出土甕棺墓 二例——注口土器(驪)——」pp. 一三~一八 全州 全羅北道博物館(一九七三)
- (5) 全榮來 前掲書「第一四圖」p. 八
- (6) 抽稿「三國時代 土器」韓國の考古學 pp. 二〇四~二一八 東京 河出書房(一九七二)
- (7) 金元龍 「惠比須山墳墓群出土の韓國系遺物について」惠比須山遺跡發掘調查報告 pp. 五七~六二 長崎 長崎縣峰村教育委員會(一九七四)
- (8) 金東鎬 東萊福泉洞第一號古墳發掘調查報告「有孔小壺」p. 二四。「圖版四 五」實測圖 一六「釜山 東亞大學校」(一九七〇)
- (9)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圖版二八 驪」p. 一一 서울 梨大刊(一九六八)
- (10) 金載元・金元龍 著 井垣春雄 譯 朝鮮美術「新羅土器」pp. 三七~五二。東京 美術出版社(一九六七)
- (11) 金載元・金元龍 前掲書「圖版一〇」p. 一一九
- (12) ① 金元龍 「前掲論文」
② 全榮來 全北遺蹟調查報告 第一輯「全北地方 出土甕棺墓 二例」pp. 一~一二 全州 全羅北道博物館(一九七三)
- (13) ① 金廷鶴 「熊川貝塚研究」亞細亞研究 通卷二八號 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一九六七)
② 林孝澤 「洛東江下流 伽耶土擴墓의 研究」韓國考古學報 4 서울 韓國考古學研究會(一九七八・四)
- (14) 後藤守一 「須惠器と土師器」圖說日本文化史大系 pp. 二五四~二六八 東京 小學館(一九五八)
- (15) 田邊昭三 「須惠器」古代史發掘 ⑥ 古墳と國家の成立ち pp. 六四~七一 東京 講談社(一九七五)
- (16) 抽稿 伽耶地域 土器의 研究「二、昌寧郡 桂城面 出土土器」新羅伽耶文化 第二輯 pp. 二二~二八 大邱 嶺大新羅伽耶文化研究所(一九七〇)
- (17) 抽稿 「皇南洞古墳 出土 神龜形土器와 角坏 및 角坏받침」考古美術 一三二號 서울 韓國美術史學會(一九七六)
- (18) 金東鎬 前掲 東萊福泉洞第一號古墳發掘調查報告「有孔小壺・注口土器」p. 二四
- (19) 宗像 沖の島展「五八、有孔土器」pp. 一〇~一一 東京 出光美術館(一九七七)
- (20) 抽稿 韓國のやきもの 1 新羅 「新羅・伽耶の陶土工藝の歴史と技術——異形土器——」pp. 一三三~一四四 京都 淡交社(一九七七)
- (21) 金載元 壺杆塚斗銀鈴塚「遺物——金銅製冠——」pp. 二四~二八 서울 國立博物館(一九七八)
- (22) ① Carl Henze, Schamanen Kronen zur Han-Zeit in Korea. in: *Orientalische Zeitschrift*. Bd. 19. 5: 156~163, 1933
② 카를・헨쯔에著 大林太良 譯「朝鮮古代의 샤AMAN의 冠」古代學研究 第七三號 pp. 一三~二〇 大阪 古代學研究會(一九七四)
③ 齋藤忠・吉川逸治 著 原色日本の美術 1 原始美術「圖七二~七六 袈裟繡文銅鐸」同解説」p. 九二 東京 小學館(一九七〇)
(嶺南大學校博物館)